

중국의 일본기업투자 총횡무진 - 중국펀드, 일본에서 약진 -

중국의 펀드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는가 하면,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SSBTOD05옴니버스의 일본주식 매입

- 중국 정부계로 알려지고 있는 펀드사가 일본주식을 계속 매입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며, 투자액 또한 줄고 있지 않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
- 2012년 3월 결산기 발표된 유가증권보고서들에 의하면, 일본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 펀드사는 다름 아닌 최근 수년간 일본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펀드사「SSBTOD05옴니버스」로 밝혀짐
- OD05는 중국 정부계 펀드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3월 말 시점에서 약 250개사의 주요 주주에 이름을 등록
 - * 3월 결산이 아닌 기업 외에 주식보유 순위가 11위 이하인 일부 기업들도 포함
- 보유액 시가는 3월 말 시점에서 약 3조 7000억엔으로, 봄 까지 일본 주식 가격이 전조세를 유지하여 시가가 부풀어 오른 측면도 있음
- 2011년 9월 말부터 6개월 동안 6000억엔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

□ 제조업이 보유액의 과반을 차지

-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며, 7월 9일 종가 기준으로 도요타자동차에 대한 투자액이 2000억엔을 초과하여 작년 9월 말에 비하여 약 400억엔 증가
- 혼다, 캐논,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업 외에 도레이, 테이진, 아사히카세히 등 소재류 관련 주식도 증가
- 중외제약, 오츠카홀딩스, 스미토모고무공업, TOTO, 다이바츠공업 등에 신규 주요 주주로 참여
- 치바은행그룹 증권회사의 자산관리 추계로 OD05 보유주식중 전기·정밀 17%, 자동차·자동차부품 15%, 기계 6%를 점하게 되어 제조업 전체로는 처음으로 50%를 상회
- 증권관계자에 의하면, 2009~2010년경에 비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
- 이는 일본주식에 대한 투자경험 축적을 배경으로, 경영실적이 회복기조에 있는 기업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

〈표〉 OD05의 일본주식 보유현황

기업명	보유액	보유주식수	보유비율
도요타자동차	2013억엔	6382만주	1.9%
미쯔비시UFJ파이낸셜그룹	1439	3억 7187	2.6
혼다	1058	4838	2.2
미쯔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1818	3903	2.8
캐논	869	2845	2.4
미즈호파이낸셜그룹	795	6억 722	2.5
NTT	638	1697	1.3
타케다약품공업	636	1759	2.2
히타치제작소	633	1억 3250	2.9
소프트뱅크	617	2122	1.9

미쓰비시상사	604	3697	2.2
화낙	602	472	2.0
미쓰이물산	516	4298	2.4
NTT도코모	499	37	0.9
닛산자동차	473	6498	1.4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	471	928	2.3
코마츠	461	2448	2.5
세븐&아이홀딩스	446	1828	2.1
미쓰비시지소	403	2893	2.1
신에츠화학공업	400	924	2.2

자료 : NIKKEI BUSINESS, 2012.7.16

- 일본기업들 사이에서는 OD05가 접촉을 시도해 본적이 전혀 없다고(자동차메이커)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상황증거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

□ OD05가 중국 정부계 기업이라는 몇 가지 상황 증거

- OD05가 일본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등장한 것은 2009년 3월경.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전반에 걸쳐서임
 - 이 시기는 2007년 발족된 중국의 정부계 펀드인 중국투자(CIC)가 운용방침을 재검토한 시기와 겹침
- CIC는 설립 후 미국모건스탠리 등에 투자하여 화제가 되었으나, 그 후 주락 하락으로 손실을 봄. 2009년에 투자방침을 재정비하여 주식, 채권 등 상장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모집
 - 바로 이같이 타이밍이 일치한 것이 OD05=중국정부계 펀드라고 추측하는 증거가 되고 있음

- 또한, 리먼 쇼크 이후 일본주식을 이 정도 규모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가 중국 이외에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이와 같은 설을 보강해 주고 있음

□ 이번의 상황

- 이번에는 중국정부가 3조 3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화준비자산의 운용을 보다 다양화할 방침을 보이고 있음
 - 그중 많은 부분이 신흥국이나 인프라투자,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공산이 크나, 전통자산의 하나로서 일본주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임
- 투자액은 일본주식 전체 시가총액의 1%를 넘어서고 있어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투자펀드, 일본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 한편 최근 중국의 투자펀드가 일본 중견·중소기업들의 중국진출도 지원하고 있음. 중국 강소성 투자회사 등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총 360억엔 규모의 펀드를 준비
- 기술은 있으나 단독으로 진출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작기업을 설립, 판로개척 등도 지원
- 주목되는 것은 합작기업 설립 시, 중소기업이 합작기업에 제공하는 제조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출자금 대신으로 하는 방법도 인정된다는 점임

- 일본 중소기업측은 합자기업의 주식 10~45%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도 기술력이 있으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엔고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나,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시사점

- 일본 안팎에서 종횡무진으로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때리기(japan bashing)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기업들의 위세가 대단함
- 이 모두 일본의 기술을 겨냥한 것으로 일본에서 국부유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일본이 중국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올 정도임
-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기업의 위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개혁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을 상기시켜 주고 있음

<참고자료>

NIKKEI BUSINESS(2012.7.16)